BTS 제이홉 조형물 '홉 월드' 들어선다

11월 충장로 'K-POP 스타 거리'에 팬 메시지 2만1800개 담아 조성
1일 현재 전세계서 1만8000개 들어와 수지 등 광주 출신 조형물도 만들 것

'사랑해요 제이홉. 당신이 아름답고 차분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움 없는 삶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예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당신을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팬에게서 온 메시지.)

광주 출신 제이홉이 소속된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다. 한국 가수가 '핫 100' 정상에 오른 것은 대중음악 역사상 처음으로, K팝의 역사를 다시 쓴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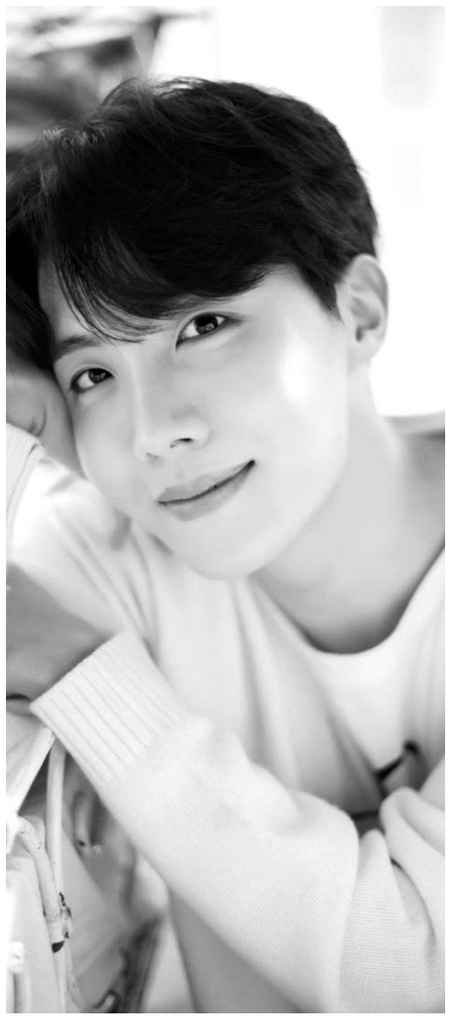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한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26·본명 정호석)에게 전하는 팬들의 메시지를 담은 조형물 '홉 월드(HOPE WORLD)'가 광주에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주최로 진행, 조이댄스 아카데미(대표 박대홍), 광주도시여행청 등 3개 회사가 대행사로 참여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K-POP 스타 거리'(옛 학생회관 인근)에 세워질 조형물은 현재 제작이 60% 정도 진행된 상태며, 오는 11월 완공 예정이다.

제목 '홉 월드(HOPE WORLD)'는 제이홉의 첫 번째 솔로 믹스테이프(비정규 무료 앨범) 타이틀로, 빌보드 200 앨범차트에서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2주 연속 진입한 앨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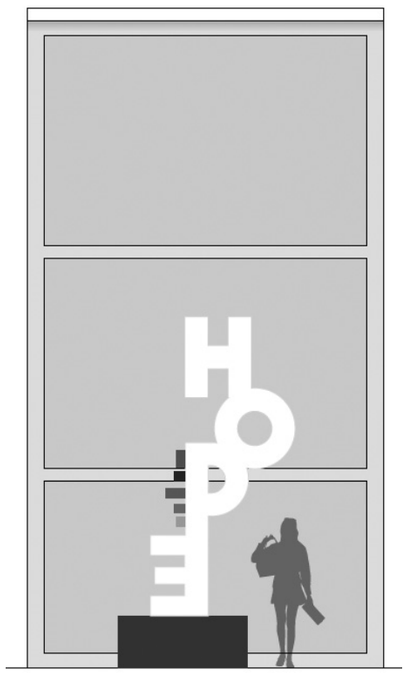
조형물에는 제이홉을 향한 팬들의 메시지 2만1800개가 새겨지는데, 메시지 갯수는 제이홉의 생일인 2월18일을 상징한다.

현재 제이홉 팬클럽 '홉 언더월드'를 비롯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연결된 세계 팬들로부터 메시지(50자이내)를 이메일로 받고 있으며, 지난 1일까지 약 1만 8000여개의 메일이 접수됐다. 이번주 안에 목표했던 2만1800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

메시지는 '당신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나의 밝은 희망입니다', 'J-HOPE, 너는 나의 희망, 웃고있는 너를 보면 내 하루가 행복해', '사랑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소 하나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나의 희망. 이라크인들은 당신을 사랑해요' 등의 내용으로 제이홉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무한한 사랑을 담고 있다.

모로코, 러시아, 미국, 중국, 스페인 등 전 세계에서 날아오고 있는 메시지는 찾아보기 쉽게 국가별로 나뉘어 새겨진다.



제이홉 팬들의 메시지를 담은 '홉 월드(HOPE WORLD)' 예상 모습.

제이홉은 지난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1억원을 기부했으며, "후배들을 위해 써 달라"며 모교인 광주 국제고에 1억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 노래 '마 시티(MA CITY)'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는 랩 가사를 쓰고 부르는 등 고향과 모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조이댄스 아카데미 박대홍(44) 대표는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새겨진 조형물을 보러 많은 분들이 광주를 방문하길 바란다"며 "'홉 월드'를 매개로 주기적으로 팬들을 초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와서 '홉월드'도 보고 다른 관광지도 둘러보고, 본국으로 돌아가 '홉월드' 홍보도 해주길 기대한다. 제이홉을 시작으로 유노윤호, 수지 등 광주출신 유명인들을 초청, 핸드프린팅 등 또 다른 조형물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조선왕실 서양식 도자기 온라인으로 본다

국립고궁박물관, VR 특별전
백자 채색 살라미나병 등 400점 공개

1886년은 조선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해다. 조선은 1882년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국가들과 통상조약을 맺기 시작했다. 서구 열강들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자, 프랑스가 청나라를 통해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당시는 쇄국정책을 추진했던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던 즈음이었다.

조선과 프랑스 수교를 기념해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고종에게 보낸 백자가 있다. 일명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 프랑스 대통령은 고종에게 자국의 도자기를 보낸 건 문화강국을 과시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을 터다. 화려한 색상과 고풍스러운 조형은 프랑스 상류층들의 애장품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조선왕실에서 사용했던 서양식 도자기를 온라인 전시를 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고궁박물관의 '新신 왕실도자,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 온라인 전시는 VR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재현한 특별전이다.

이번 특별전은 개항 이후 근대국가로 나아가고자 했던 조선의 모습을 서양식 도자기를 매개로 조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시장에 설치돼 있는 다양한 체험영상과 유물설명, 오디오 가이드 등 풍부한 콘텐츠를 VR 화면과 연결한 덕분에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에는 '백자 채색 살라미나병'을 비롯해 '백자 색회 고사인물무늬 화병' 등 최초로 대형 화병 13점이 공개된다. '3차원 입체(3D)오브젝트 기술'이 동원돼 관람객의 몰입을 높일 뿐 아니라, 화병의 경우 360도 평행으로 확대하며 돌려볼 수 있다.

또한 궁중 곳곳을 밝혔던 '유리등갓' 165점과 필리뷔트 양식기 한 벌 등 약 310건 400점 근대기 소장 유물이 선보인다.

전시 기간 중에는 유물에 대한 상세정보와 세부 주제별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오는 24일에는 특별강연 '조·불 수교기념 도자기 예물과 新신왕실도자의 의미'(곽희원 고궁박물관)와 '조선왕실과 프랑스자기의 조우'(엄승희 이화여대)가 펼쳐진다.

아울러 매주 목요일에는 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gogungmuseum)에 유물에 대한 상세정보와 세부 주제별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공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궁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2실에는 1886년 조선과 프랑스 수교를 기념해 프랑스 대통령이 고종에게 보낸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이 놓여 있다.

뮤지컬도 '언택트'… '모차르트' 첫 유료 온라인 공연

10월 3·4일 상영…김준수 주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뮤지컬 작품이 제한적으로 상연되고 있는 가운데 '모차르트'가 뮤지컬계에서는 처음으로 유료 상영에 돌입한다.

EMK컴퍼니는 '모차르트 10주년 기념공연' 네이버 실황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VOD 관람권, MD 상품을 결합한 상품 판매를 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결합상품이 아닌 VOD 관람권만을 파는 상품은 오는 4일부터 판매한다.

관람권을 구매하면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과 4일 네이버 브이라이브(V LIVE)를 통해 '모차르트'를 관람할 수 있다.

3일 공연에는 뮤지컬 배우 박강현이, 4일 공연에는 배우 김준수가 모차르트 역을 맡는다. EMK컴퍼니는 지난달 4~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제작비는 편당 1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람권 가격은 3만3000원에 책정됐으며 관람권, 포토 세트, 포토 북 등이 포함된 결합상품은 3만9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김준수가 주연을 맡은 뮤지컬 '모차르트'.

광주 출신 오덕렬 수필가 전영택문학상 수상

광주 출신 오덕렬<사진> 수필가가 제6회 전영택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품집은 '간고등어'.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이광복)는 올해 전영택문학상 수상자로 오덕렬 수필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영택문학상은 자연주의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화수분'의 작가 전영택 소설가(1894~1968)를 기리고,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후세대 문인들의 문학적 업적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오 수필가는 수필의 현대문학 이론화 운동 등 수필의 문학성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전라도방언 문학 용례 사전을 편찬 중이며 사라져가는 전라도 방언을 보존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1983년 '방송문학상' 당선과 1990년 '한국수필' 추천 완료로 등단한 오 수필가는 모교인 광주고 교장 재임시절 '광주문학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이후 '광고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광주전남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지역 문학활동에도 기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머리해요(미용실)
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1차앞
개업할인이벤트
컷트8,000원 염색20,000원 펌25,000원
크리닉50,000원 셋팅펌50,000원 매직50,000원
☎ 062)511-2337, 010-6886-3171

매산철거·삼보소개소
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텐, 특수미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잡·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

대 연 건 설
동구 제봉로 190번길 7-1 (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장·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명품옷수선전문점
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 각종명품옷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
☎ 010-2474-1457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새서림 떡 방앗간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

광호익스프레스
북구 자산로5(신안동)
포장이사/일반이사/사무실이전/이삿짐보관
☎ 062)522-1414, 010-3605-1445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통)
인삼·벌꿀·홍삼·생약초즙·붕어즙·장어즙
닭발즙·칡즙·포도즙 각종고 냅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

비 비 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비기비빔밥,각종해산물비빔밥,돌솥비빔밥,연어초밥,회세트
☎ 062)229-1008, 010-8572-0999

일번지식당
나주시 영산포로284 (구.영산포역 도로변)
흑염소탕, 뚝배기오리탕, 추어탕, 소갈비살
순두부찌개, 뚝배기불고기, 불고기비빔밥, 삼계탕
각종 모임 환영
☎ 061)335-1110, 010-8543-9617

the 사라헤어
북구 북문대로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컷, 염색, 일반펌,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닉
☎ 062)522-2380, 010-8200-9182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우 리 식 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어주민물장어탕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82번가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

명품크리닝 전문점
서구 치평동 275-22(우리들병원옆)
명품스니커즈·운동화·가방·카페트 염색, 복원, 수선일체
주인 직접 명품세탁, 유모차 전용 세탁소 오픈
(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
☎ 010-6559-6700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